

“롯데아울렛 공용주차장 사용료 물려라”

市 허술한 관리 지적... 일부 기금은 목표액 턱없이 부족

광주시의회 결산검사 결과

광주시가 공유재산 대부료를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는 반면 일부 기금은 법률과 조례가 정한 목표액에 턱없이 부족해 단 한 차례도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회 결산검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최근 광주시를 상대로 한 201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주)롯데가 광주시 공유재산인 광주 서구 풍암동 월드컵경기장 인근 주차장 약 5만7000㎡ 상당을 (주)롯데아울렛의 고액 전용주차장으로 무상사용하고 있는 것도 대부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위원회에 따르면 롯데마트·롯데아울렛 월드컵점은 고액 증가에 따라 주차장 부지가 부족해 광주시와 애초 계약한 주차장 부지 이외에 인근 공용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주)롯데가 광주시와 계약을 하지 않고 무상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의 예상 대부료는 지난해 기준으로 50억여 원에 이르고, 주말을 포함한 공휴일만 대부료를 적용할 경우 15억4500여 만 원에 이를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광주 서구 풍암동 (주)롯데아울렛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제시해 인근 공용주차장에 대한 대부료를 추가 계약하고, 지금까지 부과하지 않은 대부료를 부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광주시의 재산관리기금과 무등산 보호관리기금은 기금의 조성금액이 관련조례 또는 법률에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고유 목적 사업에 단 한 번도 지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 재산관리기금 확보율은 법정최저 적립금액인 35%(239억원)로, 전국 시·도 중 최하위의 기금확보율을 기록하고 있고,

무등산 보호관리기금은 지난 1999년 이후 12년간 조성금액이 23억4000만 원으로, 조례가 정한 목표액 50억 원에 크게 미달됐다.

위원회는 따라서 무등산 보호관리기금의 경우 기금 목표액이 적절하지 구체적인 재검증이 필요하고, 2012년 국립공원의 승격 여부에 따라 폐지 또는 전용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사업기간 중 계획을 변경하거나 취소해 연간 1000

억 원이 넘는 불용액을 발생시키는 등 일부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허점이 드러났다. 광주시교육청의 2010년도 예산 현액의 불용액은 1110억3500만 원이었다.

위원회는 시교육청이 사업기간 중 계획변경 및 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사업계획을 수립해 실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지방재정 악화 대책 마련 등 현안문제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 열린 '제22차 전국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7명의 구청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유태명 광주 동구청장, 김은숙 부산 중구청장, 최창식 서울 중구청장, 윤순영 대구 중구청장, 김홍복 인천 중구청장, 박용갑 대전 중구청장, 박성민 울산 중구청장. (광주 동구청 제공)

주한미대사 성 김 내정... 첫 한국계 탄생

8월 부임... 이번주 한국정부에 아그레망 신청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차기 주한미대사에 성 김(51) 6자회담 특사를 내정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미국 정부는 이번주중 한국 정부에 성 김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주재국 임명동의)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 김 특사의 한국명은 김성용으로 중학교 1학년때까지 서울에서 살다 부친을 따라 미국으로 이민, 1980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한국계 미국인이다. 펜실베이니아대 졸업 후 로스쿨을 거쳐 검사생활을 하다 직업 외교관으로 변신했다.

성 김 특사가 아그레망에 이어 미 상원 인준절차를 거쳐 주한미대사로 부임할 경우 지난 1882년 양국이 수교한 이후 129년만에 처음으로 한국계 주한미대사가 탄생하는 것이다.



근현대사에서 최초의 주한미대사는 1883년 부임한 루시우스 푸트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대사 직함을 가진 공식 주한미대사는 대한민국 정부수립후 1949년 4월 부임한 존 무쇼가 1대 대사이며 캐슬린 스티븐스 대사에 이르기까지 21대로 이어져오고 있다. 성 김 특사는 대사 인준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스티븐스 현 대사의 후임으로 오는 8월께 부임할 전망이다. 성 김 특사는 첫 한국계 주한미대사이기도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 출

범후 6자회담 특사로 지명돼 상원 인준을 거쳐 '대사'(ambassador) 직급으로 승진하며 한국계 첫 대사 기록을 세웠고, 앞서 지난 2006년 한국계로 첫 국무부 한국과장에 임명되는 등 미 국무부에서 첫 한국계 임명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백악관은 차기 주한미대사에 비종교적인 인재를 기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최상으로 평가받는 한미교역 협상을 상징할 수 있는 후보로 한국계인 성 김 특사를 적임으로 판단해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외교가는 성 김 특사가 주한미대사관 근무와 국무부 한국과장 경력을 바탕으로 한 기간 현안에 밝은데다, 북한문제에도 정통해 주한대사로서의 역할을 두루 갖추어 있고, 한국계로 한-미간 고교 역할을 해나갈 수 있는 후임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뤄진 인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연합뉴스

임재범과 사촌... 부친은 DJ 납치때 주일 대사관 근무

성 김 내정자 가족 한국과 인연 눈길

최초의 한국계 주한 미국대사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성 김(51) 북핵 6자회담 미국특사의 가족이 한국과 맺은 인연에 관심이 쏠린다.

5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성 김 특사의 부친은 1973년 김대중 전 대통령 납치사건 당시 주일 한국 대사관에 근무했다. 그의 부친이 미국으로 이민 간 것도 이 사건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그의 부친이 1958년 북한에 의한 KAL기 납치사건 때 북한에 납치됐다가 풀려났다는 얘기도 나온다.

또 김 특사의 모친은 가수 임재범의 부친이자 왕년의 인기 아나운서인 임택근(71)씨의 손위 누나이다. 성 김 특사와 임재범씨가 사촌지간인 셈이다.

김 특사는 정진석 청와대 정무 수석과도 어릴 적부터 오랜 인연

을 맺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특사와 정 수석은 1960년생 동갑(51)으로 어렸을 때 서울 성북동에 같이 살면서 친구로 지냈으며 성 김 내정자가 중학교 1학년때 미국 캘리포니아주로 이민을 떠난 후에도 꾸준히 교분을 유지했다고 한다.

성 김 특사는 2006년부터 3년간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1등 서기관으로 근무하면서 이민 이후 한국 생활을 경험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비밀접촉서 1만달러 北에 건네”

박선영 의원 제기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3일 정 사회당 개헌을 위한 남북간 비밀접촉서와 관련, “(북측에) 1만 달러가 건네졌고 그 것은 교통비와 호텔비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 정권이 지난 3년 내내 남북정

사회담에 목을 매고 있었던 것”이라며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지난달 중국 베이징에서의 비밀접촉 이외에 지난해 12월 베트남, 지난 3월 말레이시아 등 2차례의 비밀접촉이 더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난달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과 관련, 후계자인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의 수행

여부를 놓고 혼선이 빚어진 데 대해 “정부가 사용하고 있는 대북 정보 예산은 비공개인 국가정보원 예산을 제외하고 통일부 예산만 112억원”이라며 “이 돈을 어디다 쓰고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냐”고 추궁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남북 접촉결과 관련, “남북이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 쪽으로 끌고 가기 위한 접촉의 일환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며 “정상회담을 이벤트성으로 하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전략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차원의 정상회담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미 FTA 번역 오류 296건 정정

새 비준동의안 의결

정부는 3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는 지난 2008년 10월 국회에 제출한 기존 한·미 FTA 비준동의안 중 협정안 한글본에서 일부 오류가 발견돼 지난달 국회 외교교통상위원회에서 철회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기존에 상인위를 통과했던 비준안의 번역 오류를 수정하고 미국 측과의 서한 형태로 교환된 추가협상 내용을 포함한 새 비준 동의안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 외교통상부는 이날 한·

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한글본의 번역 오류를 재검토한 결과 본문에서 296건의 오류를 발견, 정정했다고 밝혔다.

본문에서 발견된 유형별 오류는 잘못된 번역 166건, 잘못된 맞춤법 9건, 번역 누락 65건, 번역 첨가 18건, 일관성 결여 25건, 고유명사 표기 오류 13건 등이다. 외교부는 미국 측과 협정문 한글본 번역 오류의 정정을 협의하는 서한을 교환했으며, 새 협정문 한글본을 외교부 FTA 홈페이지(www.fta.go.kr)에 게재했다.

외교부는 또 한·페루 FTA 협정문 본문의 한글본에서도 145건의 번역 오류를 발견해 정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지방재정악화 정부가 지원을”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협회

전국 7대 도시 중심구 구청장들이 지방재정 악화 대책 마련과 자치구 현안문제 해결에 정부가 앞장서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5일 광주시 동구(청장 유태명)에 따르면 지난 3일 동구청 3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22차 전국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7명의 구청장들은 열악한 자부재원 확보를 위한 4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공동결의문의 내용은 ▲열악한 자치구의 자부재원 확보를 위해 광역시세와 자치구세의 합리적인 세목 조정 ▲보통교부세를 자치구에 직접 교부 방안 ▲재원조정교부금 재원 확대 ▲

지방재정 지원 방안 등이다.

이날 모인 구청장들은 “전국 대도시 중심구는 지방자치 발전을 선도하는 견인차 역할을 해왔으나 급격한 사회복지 예산 증가, 부동산 경기 침체와 감세정책에 따른 세수 감소 등으로 인해 구 재정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 대도시 구청장들은 “시·군 보다 행정 및 재정 수요가 월등히 높지만 세입기반인 보통교부금이 적게 배분돼 자치구 재정을 악화시켰다”며 자치구의 행정수행에 필요한 재원 보장을 위해 보통교부세를 자치구에 직접 교부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청정자연 캐나다에서 태어난 50년 역사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50여 개국으로 수출하여 글로벌 시장에도 우수한 품질확신!

2010년 12월 내추럴팩터를 국제약품이 공식 판매 합니다!

청정자연에서 건강을 찾아 연구하는 캐나다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내추럴 팩터스

50년 내추럴팩터스 역사를 담았습니다!

캐나다 대표 브랜드 내추럴팩터스는 수십만 평의 자체 허브농장에서 재배한 자연원료를 최첨단 자체연구소에서 우수한 연구기술진이 탄생시킨 고품질 명품 건강기능식품으로 원료에서부터 완제품까지 철저한 품질관리 시스템은 50여년 동안 명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위해 철저하고 꼼꼼한 선택! -내추럴팩터스입니다!

Natural Factors 한국총판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공업주식회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48번지
 http://www.kujepharm.co.kr

제품문의 : (031) 781.9081 (고객지원팀)